

# 부상병동 KIA

## 힘난한 8연전



김진우·심동섭 마운드 공백

주말 두산전 1·2선발 상대

타격 페이스 상승에 기대

산 남이 산이다.  
KIA에게 개막 후 8연전은 쉽지 않은 승부의 연속이다. '디펜딩 챔피언' 상성을 개막 2연전에서 만나 천적 윤성환 그리고 외국인 투수 밴덴헤일과 대결을 벌였다. 홈개막전도 만만치 않았다. 9구단 체제에 따라 NC가 뒤늦게 개막전을 치르게 되면서 1선발부터 차례차례 마운드에 등판했다. 1일 신인왕을 넘어 NC를 대표하는 투수로 우뚝 선 이재학, 2일에는 찰리가 출격했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웨버도 KIA전에 첫 선을 보였다. NC 원투관전으로 출격할 이재학과 찰리는 무서운 기세로 경기 초반 KIA 타자들을 노히트 노런으로 묶으며 '호랑이 군단'을 쫓아내며 매끼 했다. 한숨을 돌리기에 이른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두산을 상대하는 KIA는 다시 막강 투수진을 만나게 된다. 로테이션상 니퍼트를 시작으로 노경은과 유희관이 KIA를 기

다리고 있다. 날씨의 변수가 없다면 일요일(6일)경에는 두 좌완의 스피드 대결이 전개될 예정이다. 양현종의 빠르기와 유희관의 느낌이 맞는 박빙의 승부다. KIA는 8연전에서 3개팀의 막강 마운드를 연달아 상대하게 됐지만 내부 마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다. 김진우의 부상과 함께 선 감독의 마운드 구상이 어그러졌다. 김진우의 종아리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임준섭·박경태 두 좌완이 모두 선발전에 투입됐다. 설상가상 심동섭의 팔꿈치 상태가 완벽치 않아 시즌 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 좌완 불펜 없이 마운드가 운영되고 있다. 외부의 강적과 내부의 부상에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다행히 초반 페이스가 나쁘지는 않다. 위기 속에서도 개막전에서 1점차 승리를 챙겼고 홈 개막전에서도 양현종의 분투를 앞세워 1-0, 1점차 승리를 지켰다. 임준섭의 난조와 찰리의 높은 벽에 막혀 고전을 했던 2일 경기에서는 잠잠하던 타자들이 뒷심을 발휘하며 균형을 맞췄다. 비록 연장승부 끝에 아쉽게 7-8패로 패했지만 경기 초반의 일방적 흐름과 달리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았다. 3일 선동범 감독은 "두 경기 질 때도 그냥 지지 않았다. 0-6에서 점수도 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 투수가 약해서 탈이지만 잘하고 있다"며 "(어려운 투수들을 만나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힘난한 8연전을 통해서 강하게 크고 있는 KIA. 타격 페이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물의를 부상병들도 있다. 8연전 위기를 넘기면 KIA의 4월 야구에도 꽃이 필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특

## 이대형, 땅볼 아웃 억울함 호소하자 이효봉 해설위원 "시원하게 치지 그랬어"

▲"그냥 시원하게 치라고 그랬어"  
3일 훈련이 끝난 뒤 KIA의 톱타자 이대형이 이효봉 XTM 해설위원을 은밀하게 찾았다. 이대형이 이효봉 해설위원을 붙잡은 이유는 전날 아웃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대형은 전날 경기에서 4회 2루수 땅볼을 친 뒤 1루에서 아웃이 됐다. 깊숙한 타구가 원바운드로 온 사이 이대형이 전력 질주를 했지만 1루심의 팔은 아웃을 선언했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이대형의 내야 안타가 맞았지만 이미 앞지러진 물. 자리에서 방방 뛰던 이대형은 소름이 끼치게 돌아서야 했다. 울상이 된 이대형에 대한 이효봉 해설위원의 반응은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어찌됐어. 애매하게 치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안타를 치라고 했다"며 웃었다. "공하고 자꾸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슈퍼소닉이라고 해도 공이 빠르지"라는 말과 함께. ▲"저도 놀랐어요"  
 챔피언스 필드의 첫 홈런의 주인공은 NC의 나성범이었다. 나성범은 2일 경기에서 임

준섭을 상대로 좌측 풀 맞는 125m 짜리 홈런을 때려내며 가장 먼저 챔피언스 필드의 그라운드를 돈 타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진흥고 출신의 나성범에게는 고향에서의 만끽한 짜릿한 순간. 지켜보던 이들에게는 나성범의 괴력에 놀란 순간이었다.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었던 큰 타구였다. 풀에 맞지 않았다면 경기장 밖을 훌쩍 넘어갔을 정도로 큰 타구였다. 나성범도 "(그렇게 멀리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놀랄 정도였다. 연세대 예시로 활약했던 나성범은 김경문 감독에 의해 타자로 길러진 선수지만 타고난 힘이 남다르다. NC 홈구장 첫 좌외홈런의 주인공도 나성범이었다. NC 김경문 감독은 "지난해 홈구장 첫 좌외홈런이 나왔을 때(너무 멀리 날아가서) 공을 찾지 못했다"며 "을 시즌은 미리 준비하고 타석에 들어서서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나성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텍사스의 별' 추신수, 눈으로 끝냈다



이렇게 짜릿할수가... 미국프로야구(MLB) 텍사스레인저스의 추신수가 끝내기 볼넷으로 이글 연속 팀의 '끝내기 승리'의 주역이 됐다. /연합뉴스

## 필라델피아전 밀어내기 볼넷으로 팀 2연승 견인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끝내기 밀어내기 볼넷으로 결승타점을 올리고 팀의 2연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톱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3-3으로 맞선 9회말 1사 만루에서 상대 마무리 투수 조너선 파벨본과 풀 카운트 접전에서 볼넷

을 골라 밀어내기 타점으로 경기를 끝냈다. 텍사스는 1-3으로 끌려가던 9회말 3점을 뽑아 4-3으로 짜릿한 1점차 뒤집기 승리를 거뒀다. 1일 벨트레의 안타 때 홈을 밟아 전날 결승 득점을 올린 추신수는 이날은 결승 타점을 올리고 새 팀의 주축 선수로 임지를 굳혔다. 정규리그 3경기를 치른 이날 현재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73(11타수 3안타)이다.

추신수는 첫 타석에서 7구째 체인저업을 퍼올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낚았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돌아선 추신수는 6회 캔드리의 초구 싱커를 노려 매섭게 방망이를 들렸다. 투수 캔드리를 맞고 굴절된 타구를 상대 유격수 제이슨 니스가 제대로 잡지 못한 사이 추신수는 1루를 밟았다. 8회 유격수 뜬공으로 타격을 마무리한 추

신수에게 9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다. 텍사스는 1-3이던 9회말 벨트레의 안타와 미치 모어랜드의 2루타로 잡은 1사 2,3루에서 대타 짐 어두치의 행운의 3루수 앞내야 안타로 1점을 따라붙었다. 이어 레오니스 마르틴의 중전 적시타로 극적인 3-3 동점을 이뤘다. 필라델피아 파벨본은 도니 머피를 볼넷으로 걸러 페이스를 모두 채운 뒤 추신수와 대결을 선택했다. 추신수는 유인구를 참아내며 풀카운트 접점으로 물고 갔고 마지막 바깥쪽 볼이 들어오자 팔을 흔들며 결승타점을 자축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스타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브라질월드컵에서 착용할 새로운 원정 경기 유니폼이 공개됐다. 원정 경기 유니폼은 상·하의 및 양말까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을 기본 바탕으로 상의 오른쪽 어깨는 붉은색, 왼쪽 어깨에는 파란색 디자인 하이라이트가 가미돼 감동을 입은 전사와 같은 강인함을 표현했다. <나이키 제공>

## "지구 라이벌을 이겨라" 류, 홈개막전 SF와 격돌

12이닝 연속 무실점 호투 중인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류현진(27)이 홈 개막전에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격돌한다. 류현진은 5일(한국시간)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와 2014 정규시즌 홈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에는 5일 다저스 선발이 '미정'으로 표시돼 있지만, 돈 매틸라 다저스 감독은 LA 타임스와 ESPN을 통해 "5일 선발은 류현진"이라고 이미 공언했다. 현역 최고 투수로 꼽히는 클레이턴 커쇼(26)가 등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태에서 류현진은 본토 개막전(3월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판에 이어 홈 개막전 선발로 내정됐다. 커쇼의 공백을 메우며 시즌 초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셈이다. 매틸라 감독은 류현진을 다저스가 치르는 정규시즌 6경기 중 3차례 선발로 내보내며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